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3일 화요일 음 12월 16일 (8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성산	20%	
20%	고산	2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3/13°C
모레 맑음 7/16°C

구름많음

제주는 흐리다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C, 낮 최고기온은 8-12°C로 예상된다. 오전까지는 풍랑이 강하겠으니 유의해야겠다.

해뜰 07:29	달뜰 19:37
해설 18:07	달설 08:17
물때	만조 11:57
	간조 05:42
	23:50 18:26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	-----------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구름많음

3/13°C

맑음

7/16°C

구름많음

3/13°C

맑음

7/16°C

월드뉴스

이란 “美와 핵합의 확신… 전쟁은 재앙”

우라늄 농축 의견차는 여전

미국이 중동지역에 군사자산을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핵 협상에 열려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기간 내에도 실현 할 수 있다”며 핵무기 포기 대가로는 경제 제재 해제와 평화적 목적의 핵농축 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 개입을 검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란과의 대화 계획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연합뉴스

총돌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영구 중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역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쟁이 발발하면 이란은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갈등이 이란을 넘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제주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 표 전화 (064) 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5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류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감귤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 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피라바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生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카라향·레드향·황금향·천혜향·한라봉·하례조생·원터프린스·하귤·오피라바니·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 2327-1) 하예동 1831-2번지

Farm: Seogwipo-si, Jeju-do, South Korea, 750-2327-1, Gwangjeong-dong, Haehye-dong, 1831-2

품종별 농장 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탐라제주 바다에 장보고가 다시 오다

도 했었다.

문기가 빈약한 탐라제주에서는 바다가 기록보다 먼저 말을 걸기도 한다. 문현에 없는 사건들도 바다는 전설로 건져 올리기에. 장보고와 탐라의 사이도 그러하다. 역사

는 이 둘의 만남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전설의 기록은 남아 있다. 서귀포시 화원동 법화사에는 최근 장보고 동상이 들어서고, 전남 완도에 건립된 장보고 기념관에

도 장보고가 세운 사찰 중 하나로

탐라의 법화사가 소개되고 있음이

그러하다.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 탐라의 세력이 미치는 탐진(지금의 강진 일대)에 세운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 동아시아의 해상을 주름잡던 해왕(海皇)이다. 당나라와 일본 등의 교역 선들은 장보고의 보호 아래 바다를 오갔고, 바다는 이내 부와

문명을 나르는 길이 됐다. 이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에서 탐라는 바다의 요충지가 돼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 조선이 내린 출륙금지령(1629~1823) 전까지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는 탐

라가 토산물을 바친 신라와 교류한

기록이, 외부 세계와 접촉한 기록이

실려 있다. 대륙과 섬나라 사이에

문화의 교류를 건설하게 하고,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탐라를 지켜

준 영웅 장보고. 필자는 장보고와

관련된 역사와 설화를 읽고 상상하

며 다시 그를 떠올린다. 탐라의 유

류, 전복, 해산물, 감류 등은 해상교

역의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런 물산

이 청해진 등을 거쳐 당과 일본 등

지로 흘러갔고, 그 항로의 중심에

탐라와 장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장

보고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염

장에 의해 841년 비극적 죽음을 맞

았고, 탐라는 1105년 고려에 편입되며 왕국의 이름을 잊었다.

장보고와 탐라의 이야기는 확정된 역사보다, 바다를 부유하고 부침하는 가능성의 역사다. 그 가능성 속에는 역사적 진실이 숨어있다. 탐라제주와 바다를 잇는 항로 위에서 사람과 물자를 실은 문화와 꿈들이 오갔고, 그 중심에 바다 품에 안기듯 해양을 편히 오가게 한 선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기록을 넘어서는 설화는 우리에

게 묻는다. 탐라제주의 바다는 단절

의 경계였는가, 연결의 길이었는가.

장보고와 탐라는 이렇듯 기록 너머

에서 파도를 타고 오늘의 제주 섬

으로 건너오고 있다. 신라와 같은

왕국인 탐라와, 경주와 같은 고을인

제주는, 바다 건너 세월 건너 저편

에서 밀려오며 탐라제주로 만나고

있고 또한 만나게 하고 있음이다.

월드뉴스

이란 “미와 핵합의 확신… 전쟁은 재앙”

우라늄 농축 의견차는 여전

미국이 중동지역에 군사자산을 배

치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

이 핵 협상에 열려있다는 뜻을 다

시 한번 피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은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과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기간 내에도 실현

할 수 있다”며 핵무기 포기 대가로

는 경제 제재 해제와 평화적 목적의

핵농축 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 개입을 검토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란과의 대화 계획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